

WCC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증한 새 음녀바벨



음녀바벨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장이 된 부산

WCC부산총회가 막은 내렸지만, 이제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크게 울어야 한다. 폐막식에서 목회자들과 약한 영들이 엉켜서 추매의 잔을 든 모습들을 보았는가? 음녀의 잔을 들고 큰 용복과 큰 용 지팡이를 잡고 큰 용이 그려진 징을 3번을 타종하고, 억울하게 죽은 혼령들을 불러서 위로하는 등 토맹사나니즘 신앙에 각종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등... 여기서 WCC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인 666 적그리스도 퍼포먼스를 행했다. (계시록 18:2) '악령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장소'가 되었다. WCC 저들의 정체는 신학적 좌경화, 혼합주의적 연합운동, 용공주의적 활동과 신정통주의 성경관이며 해방신학과 비성경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자들이다. 부산 벡스코, 세계에서 물려온 WCC 관계자들은 각종 가증한 종교의식을 행하는 그곳에는 WCC를 지지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 음행의 잔을 들고 함께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교회를 살리는 데 성령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WCC부산총회가 벡스코에서 29일 개최해서 11월 8일 폐막하기까지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이하-한기보협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는 한국교회 보수교단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WCC부산총회를 철화하고 김삼환 목사는 회계하고 대표위원직을 사퇴하며 서울과 전국 중 소 도시에서 10여 차례 대규모 집회를 열어왔다. 한기보협은 지난 11월 2일(토) 제10차 WCC부산총회가 열리고 있는 벡스코 앞에서 WCC반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보수교단들은 지난 1월부터 WCC반대 집회를 강행하고 WCC가 이단이며,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국에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 부산 벡스코 앞은 전국에서 연일 목회자와 성도들로 수심만을 이루었고, WCC 부산총회를 반대한다는 함성소리는 부산을 진동시키는 등 한국교회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번 집회는 한기보협 지도자들이 앞장선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각 지역에서 모여든 성도들로 집회장소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서경배 목사(예장, 합동 증경총회장), 조영업 박사(사)성경보수개혁교회 단체인합회 대표회장)등이 자리를 같이했다. <2면에서 계속>

사설

사회안전국민 행복진흥원의 발족

정치란 적게는 개인의 인간관계에서도 잘 조절되어 가는 일부터 크게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여야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회안전국민행복진흥원이라는공익단체가안전행정부로부터조성되어 대통령직사대약체결을이루려는의지가서려 있다. 안전행정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주요정책(국정과제)은 크게 3개 분야로 나누는데 우선 '국민안전 분야'인데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국가안전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한편 4대약 근원적 척결, 안전관리 패러다임 근본적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 운영분야에도 정책 역량을 쏟고 있다. 국민 맞춤형 행정 즉 정부3.0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공공정보 개방, 공유로 일자리 창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 국정운영 시스템의 획기적 개편 등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분야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지방분권과 주민체감형 지방행정 구현,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가운데 사회안전국민행복진흥원이라는공익단체는그야말로국민의안전과사회의질서를보다나은세상으로바꾸어보고싶은대통령직의지가담겨있다. 때문에 여기의 요원들은 그 활약에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일 부정을 눈감아 준다든지 사회의 악을 외면한 다든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의 활동에 각부에서는 적극 협조해줄 것과 철저한 활동으로 어떤 정치로도 이루지 못했던 사회의 안전을 기하는 효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한기총 임원회, 대표회장 임기 연장안 부결

차기회장 후보군 엄기호 김호운 엄신형 박중선 이강평 목사 물망?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의 중임을 허용하려던 정관 개정안이 한기총 임원회에서 부결됐다. 한기총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연자동 한기총 회의실에서 열린 제24-9차 임원회를 열고 차기 대표회장의 임기를 현행 2년 단임에서 2년 중임으로 하자는 정관 개정안을 표결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3표로 부결되어 한기총 차기 대표회장은 누가? 교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 누구도 출마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지만 엄신형(예장 개혁신연·서울 중흥교회)목사, 김호운(예장 합동중앙·서울 햇불중앙교회)목사, 엄기호(기하성 여의도·경기도 광주 성령교회) 목사가 허마평에 올라있다. 한기총 대표회장을 두 번 지



내고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엄신형 목사는 관록 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다. 엄 목사는 "한기총 내에 적합한 인물이 없다보니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 교단 추천도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호운 목사는 두 번째 도전이다. 예장 합동중앙 전 총회장인 김 목사는 최근 측근을 통해 출마의사를 나타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 목사의 한 측근은 "표심의 향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엄기호 목사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다. 엄 목사는 이단·사이비 규탄 집회, 구국기도회, 노숙자·독거노인·재소자 돕기 등 사회의 낮은 곳에 사랑의 빛을 밝히는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 왔다. 군소교단이 밀고 있는 예장 합동진리 총회장 박중선 목사와 이강평 서울기독교대학교 총장 등도 자천타천으로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편 한기총 차기 대표회장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현교회 설립 32주년 기념

"2013년 토포어" **“넘쳐나는 교회”**
전도로 구원받는 백성이 넘쳐나는 교회
기도로 응답받는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
훈련으로 성숙한 일군이 넘쳐나는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현교회

비전 2020
1. 열정적 전도
2. 전인적 양육
3. 사랑의 공동체
4. 감격의 예배
5. 기쁨의 봉사
6. 즐거운 교제
7. 능력의 선교

설립 32주년 기념 예배 및 음악회
● 가을음악회 11월 23일(토) 오후 7시(본당)
● 감사예배 11월 24일(주일) 본 성전에서

담임목사 이춘복

예배시간 안내			주일학교예배 (오전 11시 20분)		
주일 낮 예배	1부	주일 오전 7시 30분	대예배(0층)	영아부(3세이하)	1층 영아부실
	2부	주일 오전 9시 30분	대예배(0층)	유치부(4-7세)	1층 유치부실
	3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대예배(0층)	1초등부	2층 1초등부실
주일 청년예배(4부)	1 청년부	주일 오후 2시 30분	비전홀(1층)	2초등부	2층 2초등부실
	2 청년부	주일 오후 2시 30분	1세미나실(2층)	중등부(중1,2,3)	2층 중등부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예배	주일 오후 3시	대예배(0층)	고등부(고1,2,3)	2층 고등부실
	수요심야기도회	오후 8시~8시30분	대예배(0층)	태아사랑학교	1층 유치부실
새벽기도회	1부	매일 오전 5시	비전홀(1층)	아기학교	1층 유치부실
	2부	매일 오전 6시	비전홀(1층)		

한기보협, WCC 광란의 굿판 규탄대회 열어

수원예성기도원(원장 성창경 목사)개원예배



(1면에 이어서.)

이날 송준길 목사(본협 WCC대책위 상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에서 이광복 목사(광신대학교수)의 기도 이어 지왕철 목사(본협 WCC대책위 회장)는 (계 18:4)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 내 백성이 그 여자에게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 17:4) 그 여자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단장한 음녀라면서 음녀인 WCC가 교회로 위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했다.

그 손에는 금잔(거룩한 속성)을 들었는데, 가증한 것들로 가득하였으며 음행(간부보다 더 나쁜 창녀들)을 했다. 그들이 백소인 안에서 행했던 상황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지금 그들이 교회로 위장을 하고 우상들과 짝하며 굿판을 벌리고 초혼제를 진행하는 혼잡주위 종교다원주의 자들과 함께 놀아나는 한국교계 지도자들의 작태에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그들의 죄에서 나와야 한다며 경고와 호소로 대회를 열었다.

아울러 특별찬양(표이리 선교사)에 이어 한홍교 목사(본협 WCC 대책위 공동회장)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무너뜨리려는 WCC

한국교회가 WCC 음녀바벨 침투로 침몰하지 않게 막아내자 호소



사탄들의 광란의 굿판을 분쇄하고 영적으로 흉악무도하기 짝이 없는 기독교 원용들의 행동을 하나님께 낱말이 고백규탄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으면서 WCC는 흉악한 불량집단이며 양의 탈을 쓰고 순진한 한국교계 지도자들의 작태에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그들의 죄에서 나와야 한다며 경고와 호소로 대회를 열었다.

또한 이의근 목사(기독교대한자 유감리회 감독)는 격려사에서 1948년 1차 WCC총회로부터 9차까지의 행사와 역사를 배경으로 한 10차

부산총회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모인 많은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10차 WCC부산총회는 막을 내렸지만 이제부터가 문제이다. 1. 행복한 가정과 국가의 질서가 혼란에 빠질 것을 전제하고 이는 동성애, 동성혼, 일부다처제가 다 될 것이다. 2. WCC는 공산주의를 옹호하며 공산 게릴라들을 돕는 용공단체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종북 괴뢰들이 도처에서 일어나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조국 대한민국은 대 혼란과 혼미 속에 빠질 것이다. 3. (행 4:12)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 외는 없다. 고 했는 데, WCC는 타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를 지향함으로써, 기독교의 근본뿌리를 부정하여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무서운 적그리스도요, 사탄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침몰 교회는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10차 부산총회에서 저들은 생명, 정의, 평화를 외쳤지만, WCC의 정체는 세상적이고, 마귀이라고 했다. 또한 저들은 교회와 하나님을 빙자하여 그리스도인을 속이는 회칠한 무덤이며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인간의 의를 세우려는 교만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벌은 결코 면치 못할 죄악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서석구 변호사(한미우호증 진평회) 한국본부 대표는 연사

에서 WCC는 공산주의, 용공주의를 지지하는 단체임을 강조했다. 또한 조영업 박사(사)성경보수개혁교회 단체인 연합회 대표회장)는 연사를 통해서 WCC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김경철 교수(WCC반대운동 연대 사무총장)의 경과 보고와 서성배 목사(예장 합동 증경총회장)는 WCC를 지지하는 교회는 나가지 말자라는 결의를 다짐하면서 축도했다.

이날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한기보협)는 참석자들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본 협의회는 지난 1월 한기총 앞에서 3일 동안 WCC를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한기총 총재철 대표회장의 회개를 촉구하고, 문제부 앞과 명성교회 앞, 명일여 앞, 서울역광장, 대전역광장 등에서 WCC반대 집회를 강행해 왔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부산, 광주, 공주, 분당 등 각 지역에서 WCC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수 만명의 WCC 책자를 발행하여 전국 시,읍,면,동 곳곳에서 배포하였으며, WCC 반대운동이 절화되기까지 불쏘시개 역할을 다해 왔고, 그 결과 전국에서 WCC반대집회는 더 확산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회장은 우리 한기보협과 뜻을 같이하는 반대운동연대 모두가 굳게 결속하여 WCC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자는 제안을 하고 마쳤다.

소외된 자들에게 새 삶을 주는 예성기도원이 되기를 기원

영적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예성기도원(담임 성창경 목사)에서 지난 10월 28일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B1층 본당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렘33:3) 내가 오리라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주제로 예성기도원 개원예배가 오세승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오선연 목사 특송, 오나임의 바이올린 연주, 예성남산교 특송, 사역자율동 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시간을 가졌다.



영광이 기도와 협력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축사에 나선 광영민 목사(등불교회/JTNTV방송사 사무국장)는 삼상2:25절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는 말씀을 인용 때에 복음의 열정이 피와 땀으로 세워지고 마음과 육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훌륭한 예성기도원이 되기를 축원했다. 이어 광태호(개혁복음 총회 총

회장)목사는 "한국교회 기도원의 부흥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제 예성기도원이 이 시대의 부흥을 위하여 역할을 다 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또한 부흥사를 위한 사역이 아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생명을 살리고, 안심할 수 있는 기도원, 친체된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기도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격려사를 전했다. 인천 박종만 기자

주영광교회 설립예배 및 장로 임직식 드려

늦은 나이지만 교회를 설립하고, 장로임직식과 혼례식을 거행

장만천 목사는 지난 2일 인천 남동구 만수1동에 주영광교회를 설립하고, 예장개혁총회 사역자와 성도들, 그 외 많은 동역자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설립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주부원 목사(주예찬교회)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이해숙 목사(천양교회)가 기도 한 후 성경사60:1절 말씀을 봉독하고, 신종근 목사(봉화사당교회)가 특송을, 총회장 김성호 목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2부로 담임 장만천 목사 사회로 임직식이 거행되고 총회장 김성호 목사는 고전4:1절 봉독한 후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총성이 아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담임 장만천 목사는 김광현 집사를 안수하여 장로로 임직을 선포하고, 성의를 차인 후 임직패를 수여했다. 3부 혼례식에는, 총회장 김성호 목사의 주례로, 마19:6절을 봉독하



고 설교했다. 이어 이찬양 목사의 축가와 주부원(주예찬교회)의 격려사, 총회장 김성호 목사의 축도 후 혼례식을 마쳤다. 이날 담임 장만천 목사는 인사의 말씀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목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종이 되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한편 주영광교회를 설립하고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장로 임직과 혼례식이 거행되었다. 장 목사는 홀로 사역하던 중 믿음의 좋은 집을 만나 돌이 한 몸을 이루고 늦은 나이지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더욱 값진 의미를 부여한다면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인천지사 광영민 기자, kdp0920@naver.com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인: 피종진 목사 이사장: 장기환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당동 574-10 대운빌라 2층 제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회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전성서수련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예배 안 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성경 예배	주일	오후 3:00	이전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일	오후 1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토)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전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기적의 자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영복선전인시온센터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강사단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동부노회 노회장
- 영복선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이거대학병원에서 퇴원 장애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마티즘관절 평형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회 고침받음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예배 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리로 100-18(신전동)
☎ 053-752-8238 010-8537-8291

은총 기도원

매일 첫째주(월-목) 정기성희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회 주관)
 매일 셋째주(월-목) 정기성희 (세계주영광 부흥사회 주관)

원장 주은총 목사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 : 010-6327-0191, 070-7518-0195

교단 및 노회 탈퇴공고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 및 노회를 탈퇴하게 되었음을 2013년 11월 13일자로 공고합니다.

등불교회 담임 광영민 목사 외 교우일동

에녹부흥 사관학교

대표: 김광현 목사

교정(서울) 김명호 목사 교정(인천) 김재자 목사 사무국장 윤광석 목사 교수 김성립 목사

교수진: 김진우 목사 김영중 목사 이창홍 목사 류영민 목사

■ 광영민 목사 약력

- 등불교회 담임
- 에녹부흥사관학교 대표수업장
- 지저스타임즈 안원지사장
-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5대 대표회장
- 지저스타임즈 본사 사무국장
-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회 사무국장

http://kiea.onmam.com

교재제공 및 회비 없음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 장소 : 충만교회 · 총회신학연구원
 ☎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1동 8-7 2층
 ☎ 문의 : (대표)010-2080-0651, (사무국장)010-2008-5072

총회신학연구원 신학생 수시 모집 (문의: 학장 김해자 목사 010-5517-7223)

합동보수 2013 목회자부부동반 동계수양회 개최



총회장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연합으로 단합된 총회, 발전하는 총회, 힘 있는 총회로 우의를 다져 예정합동보수총회(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지난 11월 7일~8일 1박 2일로 충남 세종시 갈매1길 충

만성산기도원(원장 조영만 목사)에서 2013년 목회자부부동반 동계수양회를 갖고 총회발전과 목회자부부동반으로 우의를 다져나가는 데 있어 뜻을 같이하고 예배와 기도로 화기애애하고 단합된 자리가 되었다.

7일 저녁 충만성산기도원 원장 조영만 목사는 부부동반으로 본기도원을 찾아준대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환영하는 예배와 기도회를 가졌으며 증경총회장 서동기 목사 축도로 마쳤다.

2부 본 총회 동계수양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총회장 이규필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고 부총회장 강대일 목사의 기도, 서기 임상득 목사가 시133:1~3절을 봉독하고 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형

제가 연합하여”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이번 동계수양회에 목회자부부동반과 사경으로 인해 목회자 혼자 참석한 동역자 모두를 환영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형제우의와 연합으로 단합된 총회, 발전하는 총회, 힘 있는 총회로 우의를 돈독히 다져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총무 조영만 목사의 광고가 있는 후 증경총회장 윤석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3부 순서는 총무 조영만 목사 사회로 특별기도회가 진행되었다.

1.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김국태 목사(한중노회장), 2. 총회와 신학교를 위하여 김영국 목사(호남노회장), 3. 노회와 지교회를 위하여 전예희 목사(서인노회장), 4. 목회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정호석 목사(증경 경남노회)

이어 4부에서 총회장 이규필 목사 사회로 총회 임원들을 소개하고 임원 각자의 인사가 있었다. 또한 총회법인이사는 법인이사 이규필 목사, 이사 서동기 목사, 조경일 목사, 조영만 목사, 김관호 목사, 감사 송인섭 장로를 소개했다. 이어 지저스타임즈 발행인 정기남 증경총회장 윤석철 목사의 축도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예정합동보수는 지난 달 26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동천교회에서 제98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후 증경총회장 이규필 목사(동천교회)를 만장일치 총회장에 추대하고 부총회장 강대일 목사(평안교회), 서기 임상득 목사(천북복지교회), 부서기 주지광 목사(사천대곡교회), 회의록서기 서재식 목사(풍성한교회), 부회의록서기 허봉도 목사(서광교회), 회계 송인섭 장로(양문교회), 부회계 이점수 장로(천북교회), 총무 조영만 목사(시온교회)들이 선출됐다.

예정합동보수는 다음과 같이 다

- 1. 하나님 마음에 드는 회원과 총회가 되도록 하다.
- 2. 회원 간에 화합과 결속을 갈기로 하다.
- 3. 회원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총회와 노회가 되도록 하다.
- 4. 신학과 뜻이 같은 회원을 받기로 하다. (자세한 것은 www.jmtv.kr 참고)



웨신, 총회장 이홍규 목사 및 임원, 감사 취임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도력으로 교단과 한국교계의 밑거름이 되겠다!

예장(웨신)총회는 지난 달 24일 목요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 2층 루이에서 총회장 이홍규 목사의 취임식과 직전총회장 이재갑 목사의 이임식을 가졌으며 동시에 총회 임원, 감사취임도 이루어졌다.

이날 부총회장 이영봉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서기 김안식 목사의 기도와 회의록서기 정일량 목사의 성경봉독(마 5:9, 20:25~28절)이 있는 후 웨신총회장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이어 김효운 목사(한기총 공동회장, 합동중앙총회 삼일회장은) “지도자와 지배자의 차이점이 교단의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평소 섬김과 연합의 리더십이 몸에 배인 총회장 이홍규 목사의 영향력과 지도력이 웨신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계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을 믿는다며 축하했다.

2부 순서로 직전총회장 이재갑 목사는 “이임사에서 한국교계의 표준총회, 명품총회로서의 위상을 새로운 꿈과 함께 신임총회장과 임원진에게 물려주고, 이임함을 감사했다. 신임총회장 이홍규 목사는 위대한 웨신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길 것을 다



짐하며 취임사를 전했다.

학교법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한동숙 이사장은 “지도자와 지배자의 차이점이 교단의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평소 섬김과 연합의 리더십이 몸에 배인 총회장 이홍규 목사의 영향력과 지도력이 웨신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계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을 믿는다며 축하했다.

2부 순서로 직전총회장 이재갑 목사는 “이임사에서 한국교계의 표준총회, 명품총회로서의 위상을 새로운 꿈과 함께 신임총회장과 임원진에게 물려주고, 이임함을 감사했다. 신임총회장 이홍규 목사는 위대한 웨신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길 것을 다

양창호 행정관, 영등포구 조길형 구청장의 20여 지인의 축전과 답사가 있었으며, 각처에서 화분과 난, 축하금이 쇄도했다. 이날 20여명의 기독언론기자들의 열띤 취재와 많은 내외국빈과 동역선후배, 성도들의 축하를 받은 총회장 이취임과 임원, 감사 취임식은 감동의 장이 되었다.

한편 웨신총회 총무 신언찬 목사는 2013년 웨신총회 취임식에 역대 가장 많은 축전과 70여 개의 화환으로 빛이 났으며, 이는 웨신총회의 가능성과 희망의 씨앗을 나누는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었다면서 표준총회의 지력을 보여준 복 있는 행사요 패가라며 감사했다.

한기총, 이단 중 괴수 WCC는 대한민국을 떠나라

한국교회 1,200만 성도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될 것을 호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30일(수) 오후 2시 나루공원(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벅스코 부근)에서 WCC 반대집회를 가지고, WCC의 실체를 알리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반대집회에는 예정중앙총회(총회장 백기환 목사)를 비롯한 한기총 소속 교단 및 지도자들과 부산 지역의 성도들까지 약 5천여 명이 참석하였고, 박성기 목사(브니엘 신학교 이사장) 등 부산 보수 교계 인사들도

자리했다. 임정목 목사(공동회장)의 사회로 열린 집회에서는 이강평 목사(공동회장)가 기도한 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설교했다.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한국교회는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의 피로 지켜왔는데, 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주장하는 WCC가 웬말이냐”며 “제네바에 가 보니 WCC는 쇠락하고 있었지만, 십자가만을 붙드는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우리는



이제 WCC가 어떤 단체인지 모두 알게 됐기 때문에, 굳이 WCC가 어떤 곳인지 더 이상 언급하진 않겠다”면서 “한국교회 1,200만 성도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될 것을 호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1월 13일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가? 다른 곳에 구원이 있는가? 공산 게릴라 단체를 지지하는가? 선교를 못하게 할 것인가? 동성연애를 지지하는가?”를 물었고, 그들은 모두 아니라고 답했지만 (나중에) 이를 모두 파기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후 통성 기도 순서로 ‘종교다원주의의 반대를 위하여’ 이승철 목사(공동회장), ‘동성연애 반대를 위하여’ 이병순 목사(공동회장), ‘일부다처제 반대를 위하여’ 김승수 목사(예정개혁 총회장), ‘공산주의·용공주의가 물러가기 위하여’ 엄바울 목사(예정개혁총연 총회장), ‘개종전도 금지주의의 반대를 위하여’ 황덕광 목사(공동회장), ‘한국교회 연합과 부흥을 위하여’ 이광훈 목사(예



장합동보수총회 총회장)가 각각 기도했다. 집회는 정진성 목사(공동회장)의 구호 제창, 최명우 목사(총무)의 광고, 조경대 목사(명예회장)의 축도 등으로 마무리됐다. 집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거리 행진을 통해 △종교다원주의의 온

상 WCC는 물러가라! △WCC 개종전도 금지주의를 결사반대한다! △동성연애 주장하는 적그리스도 WCC는 물러가라! △일부다처제 허용하는 WCC는 대한민국을 떠나가라! △WCC 종교혼합주의를 철대 반대한다! △용공주의 지향하는

WCC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국교회 현혹하는 WCC는 물러가라! △한국교회 분열 조장하는 WCC는 물러가라! △이단 중 괴수 WCC는 대한민국을 떠나라! △복음과 진리를 가로막는 WCC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2013 추수감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



총회장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석철 박사
천북교회



경남신학원 정호석 목사
진주사랑의교회

『다짐』

1. 하나님 마음에 드는 회원과 총회가 되도록 하다.
2. 회원 간에 화합과 결속을 갈기로 하다.
3. 회원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총회와 노회가 되도록 하다.
4. 신학과 정치가 같은 회원을 받기로 하다.



부총회장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



서기 임상득 목사
천북복지교회



부서기 주지광 목사
사천대곡교회



회의록서기 서재식 목사
풍성한교회



회의록부서기 허봉도 목사
서광교회



회계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부회계 이점수 장로
천북교회



총무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 105:1)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석철 박사

경남신학원
학장 정호석 목사

사단법인 예정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규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사무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51-47 (동천교회) ☎(02)496-0191, 496-0181(FAX)

예장합신, 피어선통합, 환경단체협 한교연 가입 승인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에 예장 합신(총회장 이주형 목사)과 환경단체협의회(회장 이주훈 목사)가 가입 승인되었다. 예장 피어선통합(총회장 김희선)은 교회 수 확신을 전제로 가입을 승인했다. 이로써 한국교회연합 가입 교단은 34개 교단 10개 단체로 늘었다.

한교연은 지난 11월 11일 제 2-7차 임원회(한교연 회의실)와 제2-3차 실행위원회(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 2-2차 임시총회(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를 각각 열고 예장 합신총회와 예장 피어선통합, 사단법인 환경단체협의회 등 2개 교단 1개 단체의 가입을 확정했다.

이날 잇따라 개최된 임원회와 실행위, 임시총회에서 예장 합신총회와 환경단체협의회 등의 가입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예장 피어선통합 총회의 경우는 임원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피어선 교단과의 조율 문제와 교단가입실사위원회(위원장 석광근목사)에 보고된 205개 교회수가 정확하지 여부로 논란을



벌었다. 결국 피어선통합 총회건의 일단 가입을 승인하되 교단가입실사위원회로 하여금 재차 실사작업을 거쳐 교회 수가 정관상의 가입 요건인 200교회를 초과하는 것을 전제로 회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제2-7차 임원회에서는 한교연 창립 이전 한기총에 가입된 66개 교단 및 19개 단체가 분회 가입을 요청할 경우 가입실사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되 기한은 제3회 정기총회까지로 하기로 했으며, 박위근 대표회장이 3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인천광역시 남부 교육 지원청 주관」 “2013 밝고 고운 동요 부르기 발표회” 열어

인천 남부 교육청 주관과 인천 백학초등학교 주최로 2013 밝고 고운 동요 부르기 발표회가 지난 5일 ~6일 이틀간 인천 중구 한중문화회관 4층 공연장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개회사, 국민의례, 내빈소개, 교육장 인사, 발표회순으로 진행 되었으며, 인천 백학초등학교 정성철 교장은 개회사에서 음악은 사람의 역사와 시간을 같이 해왔다면서,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고, 힘든 세상을 좀 더 즐겁게 살아가려고 했다.

그는 또 음악에는 힘이 있어, 밝은 노래는 마음을 밝게 하나, 슬픈 노래는 우리를 슬프게 하므로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이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기에 여러 어린이들이 평소 밝고 고운 노래를 많이 불러 자신의 심성을 맑게 가꾸어 나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교장은 깊어가는 가을에 어린이들이 맑고 밝은 목소리와 연주가 기대되어 가슴이 두근거린다면서 이번 행사를 위해 시간을 쪼개어 연습하고, 준비한 어린이들과 선생님,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갑순 교육장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인사했다. 이어 인천 남부 지원청 정갑순 교육장은 격려사에서 풍요롭고 아름다운 계절에 학생들의 꿈디고운 노래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가을

바람이 더욱 달콤하게 느껴진다고 말하고, 우리는 지성보다 감성이 우선되는 감동의 시대에 살고 있어,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울컾은 정신을 담은 동요는 학생들의 감성지수를 향상 시킬만한 더할 나위없는 맞춤형 교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는 아름다운 동요는 어떤 학문보다 위대한 마법 같은 소양을 가꿔주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 발표회는 뜻있고, 의미 있는 행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는 백학초등학교 안재현과 손세민 학생이 사회를 보았으며, 참가한 초등학교는 총17개 학교로, 학산초등학교(안성민 외 49명), 신광초등학교(선은진 외 43명), 연학초등학교(신정은 외 39명), 송의초등학교(한재영 외 46명), 송현초등학교(한이란 외 37명), 문학초등학교(박호아 외 39명), 관교초등학교(조선아 외 29명), 주안초등학교(김혜지 외 33명), 백학초등학교(이유선 외 36명), 용현남초등학교(강대현 외 33명), 도화초등학교(김예랑 외 41명), 주안북초등학교(임종진 외 36명), 영종초등학교(권은주 외 40명), 창영초등학교(신윤섭 외 34명), 대화초등학교(한혜원 외 34명), 주안남초등학교(최주은 외 50명), 공학초등학교(김규희 외 38명)순으로 이틀간 진행되었다.

인천지사 광명민 기자
kdp0920@naver.com

한교연-서울시 ‘행복한 작은 도서관’ 5호관 개관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과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함께하는 행복한 작은도서관 5호 관인 헤브론도서관이 지난 11월 6일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생명나무교회(최창석 목사시무 예장 통합 소속)에서 개관했다.

행복한 작은 도서관 5호관인 헤브론도서관 개관식 및 헌관식에는 한교연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와 서울시 이용훈 도서관장, 거마지역 기독교연합회 중경회장 안경순 목사, 부흥교회장갑종 목사, 생명나무교회 최창석 목사, 송파구청 독서문화팀 금미경 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뜻깊은 도서관 개관을 축하했다.

사회문화국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관식은 한교연 기획홍보실장 김 훈 장로의 내빈소개에 이어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와 서울시 이용훈 도서관장이 격려사를, 안경순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지만

주님의 분부대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려면 섬김과 나눔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생명나무교회가 북카페를 열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품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며 “작은도서관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책도

읽고 서로 소통함으로써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이용훈 도서관장도 “서울시가 빠르게 성장하는 속도만큼 많은 문제점도 발생하여

사람사는 공동체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길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작은 도서관을 운동을 한교연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고 한교연 산하 교회들이 줄을 이어 동참하고 있는 것에 한편 놀랍고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하고 “생명나무교회는 이름 그대로 북카페를 통해 생명이 호흡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라며 서울 시도 가능한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경순 목사는 축사에서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거여 마천지역에서 생명나무교회가 작은 도서관을 개관해 이 지역사회를 섬기게 된 것을 축하하고 내 일처럼 기쁘다”고 감회를 토로하면서 이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나무교회 최창석 목사는 “낙후된 지역에서 복음을 들고 씨름하면서 어떻게든 지역사회를 섬기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늘 기도하고 고민해 오던 중에 서울시와 한교연이 협력해 작은 도서관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알게 되어 용기

내어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헤브론이란 뜻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친구를 의미하는 것처럼 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 지역사회와 친구를 나누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전도의 산실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함께 참석한 부흥교회 장갑종 목사는 헤브론도서관의 개관을 축하하면서 행복한 작은 도서관 6호관을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에 개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날 개관한 생명나무교회 도서관인 헤브론 북카페는 지역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책을 마시며 책을 열람할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한편 한교연과 서울시는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와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 체결과 함께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책 읽는 서울 구현을 위해 서울시내 한교연 회원교단 소속 100개 교회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상호 협력해 왔다. 제1호 ‘행복한 작은 도서관’을 중앙성결교회에 개관한데 이어 2호 우성도서관, 3호 김길도서관, 4호 우리도서관을 개관한 데 이어 이번 5호 헤브론 도서관을 개관함으로써 책 읽는 서울 구현을 위한 작은 도서관 운동이 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운동으로 더욱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



축 2013 추수감사

꿈(Dream)
사랑(Love)
행복(Happy)이 넘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2013 행복한 만남이 있는 교회
적극적인 선교활동과 봉사활동 - 늘 깨어 있는 교회

전원중앙교회는
+ 여러분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 여러분의 가정과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 행복한 사랑이 피어나는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전원중앙교회의 미래 1. 성장하는 교회 2. 건강한 교회 3. 아름다운 교회

† 파송선교사 : Johnny, Peligm(필리핀), 정구현(키르기스스탄), 박혜영(일본), 윤정락(중국), 안성태(태국), 방영순(대만), 이원철(일본) 디아, C국 Thomas 김
† 협력선교사 : Nengzakhai(인도 Manipur) 외 12개국 24명 † 강도사 : 최병철 † 전도사 : 이화순, 김성택, 곡재아, 윤신여
† 정로 : 표사동, 임철수, 김대중, 박은민, † 전도인 : 서승희 † 성가대지휘/순경자립사, 피아노/조몬지, 키보드/서용희(전도인)
☐ 베델성서대학 : 매주 토요일 오후 8:30~9:30

예배시간표	찾아오시는 길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1:30	
주요 제사예배 오후 7:00	
수요일(4부)예배 오후 7:30	
세계기도회 새벽 5:30	
(단오)특별 예배, 영양회(제단) 10:00	
금요일기도회 월 10:00	
목회자(주일) 오후 1:00	
초등(주일) 오전 9:30	
학성(월) 오후 4:00	
장년(주일) 오후 1:30	

가정같은교회 ↔ 교회같은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담당목사 정기환(D.Ed., Th.D)
▷ SBS방송실교인내: 라디오 5분 메시지, AM837, FM98.1 매주(목) 저녁8:55분
▷ cbs 인터넷방송 WWW.CBS.CO.KR 24시간 청취가능
▷ 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 신문방송 이사장(www.jtntv.kr www.cpj.kr)

주 소 : 420-86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579-5(전원마을)
사무실 : 032) 321-9101, 9102, 9109 전화실교 152▷3927
홈페이지 : www.gardenchurch.org
교회통신 : 강원도 양주군 동면 원당리 산43-4번지

전통적인 저녁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천 영광교회

조강수 목사, 찬양예배로 성도들이 성령충만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



조강수 목사

한국교회는 현재 80~90%가 주일 저녁 찬양예배가 없어지고 주일 낮 예배 후 오후 2~3시로 바뀌었다. 하지만 주일저녁 찬양예배를 전통적으로 저녁 7시~8시에 드리고 있는 교회는 10~20%정도에 불과하다.

본지는 서울과 지방 중소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만나 주일저녁찬양예배가 전통적으로 다시 저녁 7시~8시에 드러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모두가 공감하고 그 결과 주일저녁 예배가 오후 2시에서 저녁 7시로 환원되고 있다. 현재 저녁 7시~8시에 드러지는 주일저녁 찬양예배가 늘어나고 있다.



인타깝게도 전국에서 많은 성도들이 저녁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저녁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를 찾는데는 어렵다. 서울 동대문에 있는 어느 권사는 저녁예배가 없어져서 정말 아쉽다면서 그러한 교회를 찾아도 교회마다 굳게 문이 잠겨져 있어 마치 창고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의외로 주일 저녁찬양예배에 목마른 성도들이 많았다.

인본주의로 타락한 교회가 많은 가운데, 말씀제일주의로 영성 회복 운동에 앞장서서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가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4동 4-24 예장 영광교회(담임 조강수 목사)는 오직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전통성을 살려 주일찬양예배를 저녁 7시에 드리고 있다.

주일찬양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담임 조강수 목사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자세에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경건하면서도 뜨거운 신앙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이들의 참된 예배관은 성경말씀을 중심으로 찬양과 기도로 훈련으로 다져진 성숙된 결과가 아닌가 싶다. 마치 70~80년대로 돌아간 듯 예배의 전통성이 살아 숨쉬는 듯 은혜가 넘쳤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러지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었다.

담임 조강수 목사는 라디오방송을 통하여 CTS-TV, CBS-TV와 JTNTV인터넷방송과 신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기도원집회를 매주 인도하고 있다. 영광교회 조강수 목사는 웨신총회의 부총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 주일저녁 찬양예배를 인도하는 조강수 목사의 찬송과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은 하나로 뭉쳐진 듯 아멘으로 화답하는 합성에 놀라움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열기는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이어졌다. 이는 마치 초대교회로 돌아온 느낌이다.

이날 영광교회 주일저녁 찬양예배는 김수현 안수집사의 기도로 시작되어 조강수 목사는 요한복음 17:20~21절을 봉독하고 말씀을 선포했다. 조 목사는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70~80년대에 뜨겁게 일어난 성령운동과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가 인본주의로 형식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 섬기고 있는 영광교회에서부터 성령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위해 이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매일같이 강단에 섰다 기도하고 있으며 매일 첫 주장은 영성회복을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말씀으로 훈련된 전 성도들은 철야기도는 물론 새벽기도에 불이 붙어 있으며,

날마다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국가 안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날 담임 조강수 목사는 목사가 하는 일은 없더러 기도하는 일이며, 강단에 섰다 기도하다 보면 말씀연구에 힘이 솟고, 때로는 영감이 떠오르면서 시를 쓰게 되고 그 시가 찬송가로 작사가 되어 교회에서 그 찬송으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고 한다. 그리고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도 자신이 작사한 찬송을 많이 부른다고 한다.

한편 영광교회 조강수 목사에게

는 제1회 청소년성경연대회가 오는 11월 2일(토) 오후 2시에 예선을 거쳐, 본선은 11월23일(토)오후 2시에 본당 2층에서 거행하게 된다.

또한 매주 목요일은 낮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지역에 있는 어려운 주민들과 어르신들을 모셔서 무료급식봉사하고 있으며, 매주(월~금) 낮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자음식당을 운영하면서 약간의 비용을 받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하고 있어 지역 기관들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다.



지저스타임즈 JTNTV 2013 제6차 이사회 열여

지저스타임즈(이사장 정기환 목사)는 지난 25일 2013 제6차 이사회를 열고 합동보수 총회장 이규필 목사를 부이사장 및 언론부흥사협의회 부총재로 추대했다.

본지 2013 제6차 이사회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동천교회(담임 이규필 목사)본당성전에서 지난 25일 오전 11시 사무국장 권영민 목사(등불교회)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인천지사 박종만 목사의 기도회 목사의 특송과 위십이 있는 후 사장 소진우 목사(예복교회/연수원장)는 6:1-2절을 본문으로 "너도 살려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임요한 목사(사회부부장, 연부협공동회장), 서영웅 목사(상임이사, 연부협부총재), 정종환 목사(운영이

사, 연부협 예술부 공동회장), 김창기 목사(운영이사, 연부협 실무회장)등이 각각 신문사와 문서선교를 위하여 기도한 후 부이사장 이규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의 사회와 부사장 전예희 목사의 기도로 회부에 들어가 신문 방송을 통해 국내외 복음화를 위한 부흥집회를 열어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2014년 1월부터 이사장과 언론부흥사협의회 총재가 섬기는 교회를 비롯해 이사들이 섬기는 교회 등을 순회하며 집회를 계획하고, 전국 기도원을 대상으로 집회를 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문서선교와 인터넷을 통한 복음전파를 위하여 본사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령했다.

이규필 목사(동천교회/합동보수 총회장)-부이사장 및 언론

부흥사협의회(이하 연부협)부총재로 추대, 전예희 목사(신광교회)-부사장 및 연부협 실무총재로 추대, 서동기 목사(서울소망교회)-상임이사 및 연부협 자문으로 추대했다.

유윤주 목사(조예교정성교회)-상임이사 및 연부협 회계로, 조영만 목사(사온교회)-운영이사 및 연부협 실무총무로, 서재식 목사(중성한교회)-박용순 목사(화북한교회)-운영이사 및 연부협 공동회장으로, 정종환 목사(부천찬미교회), 이순희 목사(온세상교회)를 운영이사 및 연부협 예능부 실무회장으로, 배정희 목사를 운영이사 및 연부협 총무로, 이우경 집사(주사랑교회)를 이사회 및 연부협 간사로 위와 같이 각각 사령했다.

피종진 목사 초청 11월 국내·외 부흥성회 제180차 해외성회(180th Overseas Assembly)

4(월)~ 6(수) 필리핀(Philippines) 마닐라 경찰청 연합성회(대회장 전대구 목사) ☎ 63-9209-01604
 7(목)~ 8(금) 필리핀(Philippines) 마닐라복음화대성회(대회장 전대구 목사) ☎ 63-9209-01604

11(월) 오전 오산 아가네교회(장영명 목사) ☎ 010-5452-1691
 11(월) 오후 월드미션연합의회(대표회장 정진희 목사) ☎ 070-4218-9175
 11(월) 저녁 W.P.M 세계선교연합회(대표회장 유동근 목사) ☎ 010-2544-0065
 12(화) 오후 광주 순복음총교회(최정희 목사) ☎ 010-9811-1715

13(수)~15(금) 주회 Nyack(10 New York World Mission 대표회장 최교선 목사) ☎ 055748-7209
 15(금) 오전 한국기독교부흥지도자대회(대회장 이종만 목사) ☎ 032515-0281
 18(일) 오전 포천 호림신학대학(대표회장 서경수 목사) ☎ 011-217-9175
 18(일) 오후 대한민국의교회(대표회장 이재라 목사) ☎ 041852-2211
 19(화)~21(목) 장소: 세종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 010-852-2211
 일본(Japan) 나라타 캄페산성서기독교교회(김태실 목사) ☎ 070-8825-9118
 일본(Japan) 동경 나라타 예수사랑교회(정성대 목사) ☎ 090-6535-9118
 24(주일) 오후 영주 사랑교회(이종만 목사) ☎ 033734-6727
 25(월)~28(목) 캄보디아(Cambodia) 씨엠평 원주민교회 ☎ 85-51-291-1410

피종진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99
 010-5255-7777
 jongsin777@gmail.com
 TEL : 0223411-9191
 FAX : 022401-7770

CTS기독교TV 대구방송 바리톤 김동규 초청 음악회 열여

섬김과 나눔의 방송 CTS기독교 TV(회장 김경철) 대구방송은 2013년 11월 15일(금요일) 오후 7시 대구 밤어교회(장영일 목사)에서 CTS대구방송 후원자들을 위한 감사 음악회를 개최한다.

음악회는 지난 시간 동안 CTS대구방송을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 마련된 음악회로 이날 음악회는 바리톤 김동규씨가 출연

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 주요 곡을 1시간 동안 부를 예정이다.

특별히 이번 음악회는 후원자들 뿐만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CTS대구방송은 앞으로 대구 지역 성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공연과 행사 등을 마련해 지역 기독교 문화 확장에 앞장설 예정이다.

문의 CTS대구방송 053)765-6880



축 2013 추수감사절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대한노회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 전하는 노회”

장 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오상목 목사
(승리교회)

반민규 목사
(백호살롬교회)

박명자 목사
(도원생수교회)

유윤주 목사
(조예교정성교회)

노회장 장한국 목사 외 임원일동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고흐7층)
 ☎ 031) 424-7612,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표어: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상임이사

2013년도 목표:
 “온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 선교사: 김경자
- 강도사: 정정훈 이진영,
- 전도사: 장성철,
- 반주자: 한진경, 한송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요일 5시
수요 예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요일 6시
새벽 예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요일 11시
금요일아침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 저녁 6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춘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
 선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 473-080]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7층
 ☎031)424-7612[교] H.P 010-4436-7060
 홈페이지: http://jlc.kr

이순희 목사 전도집회 1000명 전도 왕 세우기

강사 이순희 목사
 시민복음화 운동본부 부총서
 오산리기도원
 영명 한민선 기도원 강사

할 수 있다 전도 1000명
 하면 된다 전도 1000명
 해 보자 전도 1000명

1000명 전도 왕 세우기 전도집회
 찬양과 찬양운동 영성집회
 신유, 예언, 능력, 기적 집회
 성전건축과 재정, 전도 부흥집회

날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교회는 부흥합니다.
 성도는 몰려 옵니다.

집회문의 010-7730-0191 온세상교회 담임 이순희 목사

감사하라!

설교

곽영민 목사
세계주영광부흥사회의 대표회장



할렐루야! 추수의 계절에 독자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107:1-9을 보면, 감사할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을 원문을 살려서 다시 해석하여 읽어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참으로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참으로 영원히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감사해야 할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모든 환경을 극복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생활

이라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케 하시고 귀환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아니라 나올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한 해가 기울어 가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셨듯이 바벨론과 같은 환경의 세상에서 놀려 살지 않고, 근심과 걱정들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벗어나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됨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한 한 이스라엘이 당면한 삶의 문제는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해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궁핍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귀한 후 그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환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 문제, 환경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후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의욕을 잃고, 스바냐 3:16절 같이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손을 막없이 늘어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광야 길에서 나의 삶의 보호자이십니다.

셋째 이유는, 나로 만족케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거할 성'에 인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시23편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진정, 진중한 성도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강한 심령이 물 찾듯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감사하며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와 독자 여러분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았으니 남은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참으로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참으로 영원히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인천시온교회 집사 임직 및 권사취임식 가져

덕스럽고 귀감이 되는 신앙의 어머니의 역할을 해 달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시온교회(담임 조영만 목사)는 지난 달 28일 오후 8시 본당에서 담임 조영만 목사의 인도로 김관호 목사(세향교회)의 기도, 최철호 목사(생명나무교회)의 한기장(주사랑교회) 목사 김태국(노회장.강서교회)순으로 집사 임직(김삼남, 박용환, 장현호, 정상민), 권사 취임(박거레, 윤경순, 장은미)감사예배를 드렸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형제, 자매 가족들의 축하 속에 그리고

정다운 학생의 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날 강대일 (증경노회장 평안교회)목사는 집사와 권사를 일으켜 세우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아름답다 각각 쓰임 받는 대로 일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몸 된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목숨을 던지며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희생과 믿음의 장성하여 충만할 때까지 생명을 던져 조력자가 되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벨리알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듯이 항구도시 부산에서 열린 WCC (종교다원, 혼합, 융공, 불신, 무속, 일부다처제)를 지적하며 불행한 사실이 앞에 있다며 아쉬워했다.

축사에 나선 조영일 목사(증경노회장)는 좁은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은 아니다. 불려 택하여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일하자, 하나님이 불렀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항상 차고 넘치는 방죽 물(저수지)을 항상 풍성하게 퍼줄 수 있



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전했다. 담임 목사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빛과 소금의 역할과 덕이 되고 귀감이 되어 신앙의 어머니의 역

할을 해 달라'는 당부로 임직과 보다는 소정의 감사표현에 눈길을 끌었다.

인천 박종만 기자

민주당, '중북본색' 마각을 드러내나

민주당이 반제민전 대선불복투쟁 지령에 영합 황급하게 방향선회

지난 6일 복과 노동당 대남통일 전선공작 전위대이며 구 통혁당의 후신으로서 평양에 위치한 '반제 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 중앙위원회 선전국이 마치 서울에서 발표한 양 위장을 하여 시국선언이라는 형식을 빌려 남한 내 야권 중북반역 세력에게 아래와 같은 4개항을 골자로 하는 반정부 반체제투쟁지령을 하달했다.

1. 18대 '대선' 결과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감없이 떨쳐 나서자!
2. 부정 '선거'의 주범들을 밝혀내고 엄벌에 처하자!
3. 불법 '대선'의 주범인 '새누리당'을 단호히 심판하자!
4. 단결된 힘으로 역적패당의 파썸책무화책들을 단호히 분쇄하자!

반제민전은 선언 말미에 "불법 '선거'로 정권을 강탈한 현 보수패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야당과 진보단체, 언론과 시민대중을 향해 자행하는 파썸책무는 5. 16 군사장관들의 악행 그대로이다. 지금 보수패당은 합법적인 진보정당을 '내란음모세력'으로 매도하여 해산시키려 하는가 하면 진보언론과 '전교조'를 '중북좌파'로 몰아 말살해 버리려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고 반정부투쟁의 불가피성을 강조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동 지령했다. 시민들이여!



보수패당의 '대선' 개입사건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구하고 새정치, 새 사회를 바라는 국민적 지향과 요구에 대한 정면도전인 동시에 유신부활의 전주곡이다. 지금이야 말로 온갖 부정과 파썸의 집단인 현 보수당과 '새누리당'의 죄행을 총결산 할 때이다. 직업과 계층, 당파의 차이를 초월

하여 너도나도 부정 '선거' 규탄투쟁에 과감히 떨쳐 나서자!

MB '정권'을 전물케 했던 전국민적인 촛불보 보수패당의 부정협잡 '선거'진상, 파썸 '정권' 조작 책동을 날방이 밝혀내고 책임자 처벌을 기어기 성사 시키자! 중남 없는 줄기찬 투쟁으로 보수패당의 협잡정치, 독재정치구조를 갈아엎

한선협, 미기총 선교협약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세계총,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 회원 단체인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미기총, 대표회장 임형태 목사)와 재일한국기독교선교협의회(한선협 전국회장 이병용 목사)가 선교협약을 체결하고 일본

미국 양국 선교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선교 교류의 장이 펼쳐지기로 했다.

지난 11월 3일(주일) 오후 5시 일본 오사카시 교바시에 소재한 디아커뮤니티(THE ARK COMMUNITY)에서 열린 선교협

약을 통해 한선협과 미기총은 선교협력과 지도자 교류를 통해 본국의 세기총 및 한교연과 더욱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세계 속의 한국 디아스포라의 교회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오는 2014년 2월에 세계총 주최로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는 "교회의

본질과 일치" "조국평화통일"을 위한 컨퍼런스에 한교연과 한선협, 미기총이 적극 참여하기로 했으며, 선교협약식을 마치고 디아크 커뮤니티 교회의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애찬을 통해 한선협과 미기총이 함께 해 나갈 비전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지문 백승욱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축 2013 추수감사절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원장:곽순중 목사
(본지 상임이사)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누구리

사랑 섬김, 행복이 가득한
강릉 정동진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담임목사 최낙현 원장

부목/장기 요양원 정동진 행복원

예/배/시/간/안/내

- ☉ 국제 153부흥협의회 대표회장
- ☉ 세계교회부흥협의회 운영회장
- ☉ 천안총회신학신대원실천신학교수
- ☉ 서울 칼로소신학연구원 교수
- ☉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033)655-0691/0692 /HP:010-6409-0091
E-mail:crnh1091@hanmail.net

한국기독교 **홍성제일교회**
장로회

2013년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구분	부	시	간
1	찬양	오전	9:00
2	말씀	오전	11:00
3	주일 예배	주일	오전 7:30
4	주요 강 연회	주일	오전 7:30
5	공로영양회	주일	오전 9:00
6	찬양	주일	오전 11:00
7	찬양	주일	오전 2:00
8	찬양	주일	오전 4:00
9	찬양	주일	오전 6:30
10	찬양	주일	오전 8:30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번지
전화: 041-634-0441(사무실)
041-633-6146(목양실)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윤주 목사
법무부 교정위원
영적복음가수

조에/생명사랑은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884-5 202호
☎ 070-8632-6993 / 010-3035-5704

주성청각장애인교회

예배안내

주일 오전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5시

담임 우슬초 목사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A) 319동 1803호 http://ezob.org
☎ 02)414-1191 HP 011)775-5154 010-4611-3221

대한예수교 **과천영락교회**
장로회

예배안내

오전 11시 1부, 오후 2시 2부

담임 허식 목사
(한경총 총회장)

426-18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535-5 센스빌딩 4층
☎ 031)416-8290

실만한물가교회

예배안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 가는 교회"

담임 김안식 목사

주일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토요일 제외)
이민이부예배 주일 오전 9: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토) 저녁 7:00
심야 기도회 (금) 저녁 9:00
프린트 성공회 (화) 오전 9:00 (목) 오후 7:00

(360-170)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

서울방주농아교회

담임 임해숙 목사
청각장애인지원협회 대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316 2층
문의:010)4611-3221

정기환 목사 태국 치앙마이 기행문

4박5일의 일정, 태국을 가슴에 안고~~

말씀 묵상과 기도로 전 무용과 학생들은 교수진과 함께 한 마음으로 카 오토로 묵상 나눔을 시작 하였다. 치앙마이는 불교80%, 이슬람, 천주교, 차지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카렌족이 사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저녁집회까지 시간이 남아 공예품 만드는 곳을 견학하게 되었다. 각종 아름다운 색색의 우산들이 즐비하게 꾸며져 있었으며 모두가 수공예품이라 정성과 땀 흘림의 모습이 보였다. 누에에서 채취한 실감이 색색으로 수 놓아진 옷감들, 60~70년대 한국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모습들이 연상되었고, 가격은 한국과 수준이 비슷했다. 카렌족을 향하여 붉은 색 생태우스르 타고 이동을 했다.

3시간을 가는 동안 연배가 있는 귀사님들이 토하기 시작하여 몇 번의 침을 통하여 겨우 도착하게 되었다. 카렌족들을 지도하고 계신 전도사님의 저녁식탁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치 시골 교회에 방문 한 듯!! 참 옥수수에 감동!! 돼지 껍데기 튀김 등~ 그곳은 현재 25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집회시간이 되자 성도들과 아이들이 모여 들었다. 빨강색 전통의상을 입은 한 여성도가 눈에 띄었다

피부의 색깔은 검었으나 정감이 갔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 정현이와 금새

친해져 장난기가 발동한 듯 신발을 숨기는 등 귀여웠다. 정기환 목사(이사장)의 설교와 문형근 선교사의 통역으로 예배의 시작이 되었다. CD작동이 안되어 핸드폰에 담긴 음원으로 찬양하게 되었다. 음이 끊겨 당황이 되었으나 환경에도 적응하는 대원들 은혜롭게 온 몸의 찬양을 위심으로 4곡을 올려 드렸다.

정기환 목사(이사장)의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느꼈다. 문형근 선교사의 통역을 성령께서 인도 하시고 현지 성도들과의 자유로운 예배의 형태와 한국어에서 처럼 번역된 딱딱한 교회의 건물에 지배를 안 받고 오직 복음의 자유로운 환경에 많은 차이를 느꼈다. 환경에 오염이 없는 밤 하늘은 별들이 반짝 반짝 얼마나 아름다운지? 농부의 딸로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의 향기가 싱그럽고 풀 내음과 벌레들, 때 마침 주변에서 노니는 돼지가 몸을 풀어 새끼 돼지가 엄마 젖을 먹고 있음도 좋았다.

유일한 어린이인 정현이는 이리 저리 뛰어 다니며 마냥 좋아하는 아이의 모습을 드러냈다. 피부 색깔은 달라도 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느낄 수 있었으며, 온 우주 만물 하나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각각 개개인의 기도에 응답하심과 말씀이 하나님

의 사랑을 알리고 나라간의 음식과 계절에 맞게 열대 과일들을 주신 하나님, 이 얼마나 신기하고 기적 같은 삶이 아닌가?

-다음날 매항 교회 기숙사 헌당예배
낮에는 모두가 학교에 가고 오후에 성도들이 모이는 시간이 되어 아침 일찍 태국의 가장 큰 사찰(도이 스태 사원: 해발 1천 53m) 케이블을 타고 도착하였다. 많은 관광객들과 금빛 탑을 보는 순간 진정 이 형상이 바벨탑이구나!! 사원 안에 많은 크고 작은 불상들 사이에 향불 냄새로 머리가 아팠다.

그 탑을 돌고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들!! 주님은 얼마나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 하실까? 어떠한 형상으로 있는 사찰에서 치앙마이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구름 기둥과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떠난 저들을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매왕교회 기숙사 원공

전원중앙장로교회 정기환 목사(이사장)는 교회에 강권사의 헌신을 통하여 건립된 기숙사를 헌당하게 되었다. 초창기 축구를 통하여 접근하여 시작한 선교의 결실이 지금은 120명의 성도들로 차세대에게 예수의 사랑전하며 바른 가치관과 하나님의 꿈나무들로 교회의 큰 기능을 감당하도록 문 선교사와 사모, 아들 두 형제가 섬기는 교회였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아이들이 현지 기숙사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다.

집회에 예배자로 부르심을 감사, 찬양단의 찬양의 제사가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함께 위심으로 찬양하니 더욱 감사했다. 부르심에 순종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점일획도 변함없이 불질을 채워 주셨으며 다녀온 대원들의 각양의 응답의 물결~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 감사, 보인 어려움으로 결단하기 힘든 갈등을 풀어내고 주님과 한 호흡으로 찾고 구하여서 아름다운 사역에 쓰임 받게 하심에 내내 감사만 들어났다.

함께 한 대원들의 각양의 다양함을 알고 서로가 있는 그 대로를 받아들이며 다녀온 이후로 더욱 친밀감이 형성되는 것을 보았다. 모두가 오대양 육대



주로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경외의 거룩함이 들어나길 소원해 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는 풍성한 은혜로 눈이 열리고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또한 늘 세상 끝날까지 선한 싸움으로 복음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기사,사진 조미화 전도사

칼럼

국시(國是)를 다시 찾자

자유스러울 때는 자유함을 느끼지 못한다. 자유와 평화는 삶에 있어 생명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이념을 "반공을 국시의 제일(義)로 삼는다"고 전 국민이 외치면서 공직자들은 재건복을 입고 국가발전을 위해 낫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었다.

정부적 차원에서 반공연맹을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반공정신을 확산 시켰다. 특히 중·고등학교에는 반공학생회를 조직하여 반공교육을 시켰으며 또한 전방 땅굴 견학 등으로 청소년들의 반공정신을 강화 하였다. 그 후 몇 대 정부를 거치면서 국시의 이념은 물론 반공이란 용어 자체가 사라졌다.

반공정신을 불러 일으켰던 반공연맹의 명칭을 자유연맹이라 바꾸더니 지금은 조용한 조직으로 남아있다. 좌편향 정권을 가진 국정책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정신을 약화시키려 함을 알 수 있다. 우리 국가도 어려운데 북한에 수많은 지원으로 아무것도 없던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등장 된 것이다. 북한 공산당을 강하게 만들어 주고 우리는 손놓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통일을 말하며 대화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역사의 기록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기록은 왜곡되어서도 안 되며 좌우로 치우쳐도 안되는 것이다. 오늘의 젊은 세대들에게 6·25 한국 전쟁사를 소상히 가르쳐야 한다. 일부 좌편향 교사들은 6·25전쟁을 북침으로 가르쳐 공산주의 찬양론으로 변질 경우 나라의 장래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6·25 전쟁은 반백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고 있다. 지금의 60대들도 전쟁의 쓰라림을 체험해 보지 못했다. 당시 북한 공산당의 남침은 순식간에 서울을 함락 시켰고 계속적인 남침으로 우리국민들을 정처 없는 피난의 길을 떠나야 했다.

남한을 점령한 인민군들은 경찰서를 내무서로 면사무소를 인민위원회, 지서를 자위대로 명하고 각교량등 단 일로에 초소를 만들어 우리의 피난민

들을 검문하였다. 당시의 검문은 신분증 검사가 아닌 얼굴과 손과 발을 검색 하였다. 손발이 깨끗하면 현장에서 체포하여 내무서로 연행 아무런 조사 없이 전기선으로 결박하여 무릎 꿇게 하고 참나무 몽둥이로 머리에서부터 전신을 때려죽이는 무참한 살인을 자행한 것이다.

더욱 악랄한 참상은 대전 형무소의 경우 우익인사 일천여명을 가두어 놓고 하루 한끼의 주먹밥을 주고 완전히 기력이 쇠잔한 가운데 철통같은 엄격한 수감 생활을 시켰다.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분류하여 1급에는 경찰, 군인, 공무원을 격리 시켰으며, 2급은 지방 유지와 재력인사들을 분리시켜 상상을 초월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것이다.

그러던 차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이 인천상륙작전으로 9.28수복이라는 상황에서 처하자 1급에 숙한자들을 형무소

자유스러울 때는 자유함을 느끼지 못한다.

자유와 평화는 삶에 있어 생명과 같은 것이다.

내에 3개의 대형 우물에 일렬로 세우고 우물 앞에서 각목으로 머리 후두부를 쳐 살신시켜 우물에 거꾸로 쳐 놓았다. 1개의 우물에 100여 명씩 약 300여명을 생수장 시킨 만행은 세계가 다 아는 내용이다. 나머지 2급에 숙한 자들은 형무소 마당에 허리 정도의 깊이로 줄줄이 파고 일렬로 세워 파발총으로 무참히 죽여 모두 일천여명 현장에서 죽이고 후퇴 하였던 것이다.

당시 피난길에 오른 우익인사들은 깊은 산속으로 피난해 산을 오르며 나무를 하면서 자신의 손과 발을 일꾼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온통 피투성이의 몸을 만들었다. 산속에 움막을 만들어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 등으로 연명하다 배탈이 나면 구리동전을 구해 구리를 뜯어다 갈아 먹는 기막힌 집음을 삶을 살은 것이다.

더 이상 고통을 참지 못해 피난민들을 찾아 다른 곳으로 이동 중에 인민군들의 초소를 통과 하려면 어김없이 손발을 검문하여 일꾼의 손발로 굳어졌으면 초소를 통과 하지만 그렇지 못 할시에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비참한 죽

음으로 죽는 것이다.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생명을 유지하려 했던 고통의 역사를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확실히 알려주어 공산주의의 잔학상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북한 공산주의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지금도 계속적인 남침을 위해 핵을 비롯한 점투장비와 무력 훈련으로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전쟁과는 거리가 먼 안일한 삶을 살고 있다. 북한공산주의를 지적해 두고 정신 사상으로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 순간적인 어려움이 찾아 올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국시인 반공정신을 다시 불러 일으켜 철저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

공산주의 사상은 변화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찬양 고무하는 조직을 철저히 밝혀 지우고하를 막론하고 처리하여 없애야 한다. 우리는 공산주의 이론의 이중성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선전선동 이론과 실천 이론인 것이다. 선전 선동 측면에서 그들은 대화와 타협을 한다고 하지만

만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실천이론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당의 명령과 지시만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북한공산주의와의 대화와 통일논의는 불가능한 것이다. 설령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사상적 대립으로 국가의 존립은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한다는 지난날의 국민정신을 다시 찾아야 한다. 앞으로의 통일은 공산주의를 완전히 없애고 자유민주주의 통일민을 이루어야 한다.

6·25전쟁으로 비참한 죽음을 한 선조들의 참상에 대해 국민 모두가 마음을 찢는 아픔을 가져야 한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튼튼한 국방력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투철한 반공사상으로 무장하여 안정과 발전의 희망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서영웅 목사
퓨리탄 장로교회
본지 상임이사

경북북부 제3교도소 정재홍 소장 자장면파티 열어

교도소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영혼들이 있는 곳

물과 산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청송에서 청송의 사과처럼 싱그럽고 상큼하며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은혜로운 일이 있었다. 바로 경북북부 제 3교도소에서 정재홍 소장의 사랑으로 전 수용자들에게 자장면을 제공하는 중식파티가 열렸다.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이 즉석 자장면을 먹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교도소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교도소 측의 배려와 봉사자는 물론 이를 위한 물질의 후원자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북북부 제3교도소 정재홍 소장은 지난 달 7월 2일에도 방편을 통해 정통더위에 지쳐있던 수용자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비록 교도소 담장 안에 있지만 교도소에서 범죄를 배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들과 교정위원들의 헌신, 그리고 종교집회를 통해 자신의 심성을 바로 잡고, 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보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날도 경북북부 제 2교도소의 소속으로 교정사역을 담당하는 종교위원이자 교회사담사인 이기학 목사에게 겨울을 준비하는 가을을 맞이하여 수용자들의 마음에 온기를 주고 싶다는 제의에 이기학 목사는 포항의 자장면 선교회 회장 배형수 장로(포항동부교회)에게 부탁하게 되었고, "배 장로는



자장면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겠다는 약속과 봉사를 부탁했다".

이렇게 해서 포항 자장면 선교회원들의 헌신과 이듬도 없이 빛도 없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여 사랑으로 담장 안에 있는 모든 수용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따뜻함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 교도소 측에서 보인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봉사자들의 헌신 그리고 물질로 후원한 분들이 있었기에 가을의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답고 훈훈한 자장면 DAY를 할 수 있었다.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교도소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영혼들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이려면 교도소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사랑과 관심 그리고 교정 선교하는 분들에게 기쁨으로 격려와 후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주님은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담장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포항 이기학 목사(포항지사장)



축 2013 추수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라!

<h2>중흥교회</h2>  <p>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7시 1부 11시 2부 오후 2시, 5시</p> <p>담임 윤신영 목사 안경총 동경총회장</p> <p>134-884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0-2 ☎02)476-7131</p>	<h2>함께하는교회</h2>  <p>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7시, 11시 오후 2시, 7시</p> <p>담임 이상재 목사 안경총 총회장</p> <p>423-060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765번지 ☎02)898-0539</p>	<h2>한국경목총회</h2>   <p>주일예배안내 담임 홍양표 목사 안경총 사무총장 서도양성 신학원 원장</p> <p>152-803 서울시 구로구 개봉1동 63-20 성민B/D 7층 ☎02)583-1955, 010-7585-1955</p>	<h2>예장 동천교회</h2>  <p>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30</p> <p>담임 이규범 목사 안경총총회장</p> <p>153-801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151-47 ☎02)3281-3173</p>	<h2>예장 평안교회</h2>  <p>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p> <p>담임 강대일 목사 안경총총회장</p> <p>131-221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p>
<h2>예장천복복지교회</h2>  <p>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p> <p>담임 임상국 목사 안경총총회장</p> <p>702-735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070)4220-7735, 053)741-7732</p>	<h2>예장풍성한교회</h2>  <p>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p> <p>담임 서재식 목사 안경총총회장</p> <p>429-812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031)315-8290</p>	<h2>양문교회/양문 어린이집</h2>  <p>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p> <p>시무 심인섭 장로 안경총총회장</p> <p>400-160 인천시 중구 경동 177 ☎032)766-7654 0023</p>	<h2>시온교회</h2>  <p>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p> <p>담임 조영만 목사 안경총총회장</p> <p>404-200 인천시 서구 공촌동 314 경남@ 103-506호 ☎070)7501-2584</p>	<h2>신광교회</h2>  <p>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p> <p>담임 진예의 목사 본지 부회장</p> <p>403-811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032)505-3351</p>
<h2>화목한교회</h2>  <p>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p> <p>담임 박용순 목사 본지 운영이사</p> <p>435-739 경기도 군포시 산본2동 1055 대화A1410동 709호 ☎031)456-1464</p>	<h2>서울소망교회</h2>  <p>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p> <p>담임 서동기 목사 본지 운영이사</p> <p>139-869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02)3296-0340</p>	<h2>서울개혁신학교</h2>   <p>담임 윤관 목사 안경총총회장 서울개혁신학교 총장</p> <p>482-735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세창@ 108-1201호 ☎010)3758-8905</p>	<h2>성남개혁총회신학</h2>   <p>담임 김정열 목사 개혁총회 총회장 성남개혁신학교 학장</p> <p>461-82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29-4 (5층) ☎041)534-8765</p>	<h2>평안교회</h2>  <p>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p> <p>담임 김종완 목사 개혁총회 부회장</p> <p>150-054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레미안@ 상가2층 ☎010)6233-1515</p>
<h2>우리교회</h2>  <p>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p> <p>담임 조재호 목사 개혁총회 서기</p> <p>477-805 경기도 가평군 읍내리 631-3 ☎010)6266-1331</p>	<h2>큰성산교회</h2>  <p>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p> <p>담임 임순중 목사 개혁총회 회의록서기</p> <p>302-835 대구시 서구 변동 3-43 ☎010)6413-3456</p>	<h2>주찬양교회</h2>  <p>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p> <p>담임 홍시나 목사 개혁총회 회계</p> <p>480-837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130-4 ☎031)821-0113</p>	<h2>사단법인 한국보수교단협의회</h2>   <p>담임 이범성 목사 대표회장</p> <p>157-881 서울시 강서구 학곡1동 348-21 호용B/D 6층 ☎02)2608-2190, Fax 02)2608-2191</p>	<h2>수목원교회</h2>  <p>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p> <p>담임 최순길 목사 본지 운영이사 및 본소위원장</p> <p>152-102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343번지 ☎02)2683-2091</p>

축 2013 추수감사절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주안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모성련 담임목사

예배안내

주일	1회 오전 7:30	3,4층
	2회 오전 10:00	
	3회 오전 11:30	
저녁예배	오후 7:00	대예배실
수요일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	금요예배 오후 9:30	
토요일	청년대학부예배 오후 5:00	
매일	새벽예배 오전 5:00	
	1회 오전 9:30	2층 새물반실
	2회 오전 11:30	
주일	유초동부 1회 오전 8:30	3,4층 대예배실
	2회 오전 10:10	2층 영신강화
	중등부 오전 9:00	2층 영신강화
	고등부 오전 11:10	2층 영신강화
	영여예배 오후 1:30	5층 두리노출

교회사명선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섬기는 분들

부목사 정동현 모정선 송호성 모성연
파송선교사 임재선 김은미 김희영
임원기 김진희
협동목사 정장화(은퇴) 서미옥
전도사 주정희 배순근
교육전도사 송선택
사무장로 교재현 송영문 현은상
정승언 이인필 주종필
김정서 정영규 김복진
김선홍 임희희(유지)
노영진
은퇴장로 함동정로 문환승 사범희
장로사 김희영
지회 박은숙
강주영
김주영
박미숙
최은정
정다승
최은진
이지연

찾아오시는 길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북항주택단지)
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 : (061)278-0693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정총현교회

화정교회는 말씀이 좋고, 행복한 교회로 가정을 귀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2013표어
"사랑으로, 기쁨으로, 열정으로 섬기며 전도하여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욱 아름답게 하소서"

늘 노래하는 자는 무병장수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는 영적으로 무병장수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의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사12:11)

주일오전예배 :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 오후 2시
수요예배 : 오후 7시30분
금요기도회 : 밤 9시
새벽기도회 : 새벽 5시 (주일~금요일)
유-초등부 : 오전 9시
중-고등부 : 오전 9시
청년부 : 오후 3시30분

찾아오시는 길

<도시철도>
1 중산 - 화정 85-1 교차로 - 송정전차역
850 교차로 - 행선역
706 교차 - 서울역 7728 대화동 - 신촌

<좌석버스>
85 교차로 - 김포공항 800 내곡역 - 신촌
9071 가회동 - 9105 보림동 - 서울역
<직행좌석>

82 내곡동 - 영등포 1900 분당선 - 서울역
<사회버스> 3700 의정부 - 인천
<마을버스> 6, 6-1, 6-4
<지하철>
3호선 화정역 3번출구 (도보 8분거리)

주소 : 412-82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38번길 27(화정동)
교회(031) 966-0015 (FAX겸용) 자택 (031) 965-7682

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담회장 **정대성** 목사



담임 **임찬미** 목사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행함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남복된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05-18 ☎ 070-7443-7277

2014년 새해목회준비에서 주서택 목사 밝혀

“예장, 정통총회 산하 정기노회 열려”

목회자와 교회의 성경적 부흥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로

매년 새해 목회를 구상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미래목회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건강한 모델교회 사례들을 소개해온 미래목회포럼(대표 오정호 목사)이 11일 '미래를 여는 특화된 목회'라는 주제로 300여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4 기획목회-제8차 사역설명회'를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17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고명진 부대표(수원중앙침례교회)의 개회기도와 정성진 이사장(거룩한빛 광성교회)의 인사말에서 정이사장은 “급변하는 목회 환경에서 어떻게 변화를 주도하는 목회를 할 것인가가 목회자 모두의 고민일 것”이라며 “창의적 목회 전략을 수립하고, 목회 환경 변화와 영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특화된 형태의 목회활동이 필요하며, 한국의 5만여 교회가 건강한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그리고 존경받는 교회로 나가는 성숙한 목회를 위해 대안의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첫 강에서 흥민기 목사(호산나교회)는 '다음세대 부흥전략'이라는 강에서 “많은 교회가 다음세대에 대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다음세대들은 교회가 자신들을 향한 비전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저 교회는 장년들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만 느끼고 있다. 교회는 결코 표어 등을 통하여 다음세

대를 감동시킬 수 없다. 다음세대 사역의 핵심은 관계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음세대와 핑구는 사역을 할 때 다음세대의 새로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관계중심 사역의 7가지 방법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또한 주서택 목사(청주 주님의교회)는 '내적치유의 목회적 적용'이라는 강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 치유하여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까지 나아가도록 돕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이요 신앙성숙과 회복의 과정이자, 인본주의에 근거한 심리치료가 아니라 성경말씀에 근거한 전인치유와 회복의 과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전인적 목회영역에서 적용하는 내적치유를 지적하고 내적치유의 여러 가지 단계들을 소개하였다.

이날 강사로는 흥민기 목사(부산 호산나교회), 이은재 목사(한신교회), 김한호 목사(춘천동부교회), 박순오 목사(대구서현교회), 주서택 목사(청주 주님의교회), 권순웅 목사(화성주사산교회), 류정길 목사(제주성안교회), 이효상 목사(교

회건강연구원) 등이 나서 새해목회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에게 양질의 대안을 제시했다.

강의는 △다음세대 부흥전략 △예수영성목회 안내 △지역에 뿌리 내리는 디아코니아의 실제 △내적치유의 목회 적용 △스파르셀 목회 △성경적 재정훈련 적용 △기도·말씀묵상·관계전도 직분자 세우기 등이 주요 테마였다.

참석한 유정기목사(동단사람의교회)는 “사역설명회는 새해 목회를 설계하고 미래목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등 목회자들에게 많은 도전과 비전을 심어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양정섭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 산하 각 노회가 2013년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너를 도와주리니 두려워 말라”라는 공동 주제 아래 13개 노회가 각각 열렸다. 이번 각 노회에서는 특히 WCC 반대에 대한 각 노회별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정통주의 신학을 사수하고 교회들의 성경적 개혁안들에 대하여 각 노회별도 채택을 하였으며, 각 노회들의 규칙 및 규정안과 현의 안들을 처리하고, 회원의 의무를 이해하지 않는 회원들에 대한 징계안과 노회 마다 목회자에 대한 자질을 살펴 정비하였다.

목회자의 영성 성장을 위하여 특별 집회와 행사를 28일부터 30일까지(2박 3일)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실로암기도원(유정림 목사 사무)에서 계속 진행하기로 하는 한편 목회자와 교회의 성경적 부흥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정기노회에 연합하여 모인 개회예배를 드린 행사에서 임정태 목사(중부노회 노회장)의 사회로 현준호 목사(남부노회 부노회장)의 기



도와 양정섭 목사(서울노회 노회장)의 설교 후 문수근 목사의 헌금기도와 양정섭 목사(서울노회 노회장)의 축도로 개회 예배를 마치고 목회자 특별기도회를 성동제 목사(비전중앙교회)의 인도 하에 성황리에 마쳤다.

각노회별 보고에 의하면 노회별 선임된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서울노회 노회장 양정섭 목사, 남부노회 노회장 양성국 목사, 중부노회 노회장 임정태 목사, 중앙노회 노회장 이영춘 목사, 동부노회 노회장 이광복 목사, 남서울노회 노회장은 한성욱 목사, 서부노회 노회장 김인호 목사, 수원노회 노회장 이대용 목사, 미국 워싱턴노회 노회장은 김영희 목사, LA노회

노회장에 신현주 목사, 하와이노회 노회장은 이영희목사 등이 선임되었으며, 계속 각 노회별로 임원이 개선되고 있다.

서울노회에서는 필리핀에 이선례 목사를 파송하고 호주에 김영석 목사를 파송하였다고 보고했다. 정기노회가 있기 전에 총회장 양정섭 목사는 각 노회에 특별 공문을 보내 내외 WCC의 반대운동에 적극 대처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자고 하였고 총회발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보수교단의 영입을 원할 경우 우리와 똑같은 칼빈주의 정통신앙을 가져야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각 노회가 모여 추수감사절 예배로 모이기로 결의했다.

제10회 사랑의 음악회 ‘우리들의 천국’

장애인으로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장애인예술가들의 역량을 알리는 제10회 사랑의 음악회 우리들의 천국은 2013년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사업(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이사장 최공열)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후원했다. 사랑의 음악회는 오랫동안 장애인 문화예술학교에서 앙상블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과 스승들이 함께 하는 무대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개최되었다.

첫 번째 팀으로는 인천지역의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김미란 지휘자의 지

도아래 친근감 있는 앙상블곡으로 첫무대를 가진 참빛앙상블은 오랜기간 함께 연습하며 호흡을 맞춘 팀답게 수준급의 실력을 뽐내었으며, 마법의 성, 베토벤바 이러스, 나팔수의 휴일, 캄캄으로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두 번째 팀인 ‘매직 앙상블’, ‘미래 앙상블’ 팀은 서울과 인천 강화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립합창문화예술학교 교육생으로 처음 각각 한음 연주하던 모습에서 함께 화음을 맞추며 가능성을 연주하며 천천히 한발 한발 내딛고 있다. 행렬의 ‘So the conquering hero comes’ 와 영화 강아지똥의 주제곡인 Dream을 아를

다운 선율을 연주했다. 마지막 출연팀인 ‘어우를 앙상블’은 기존 국악합창 문화예술학교의 교육생중 전문예술단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구성된 실내악팀으로 클라리넷독주(김유경), 피아노독주(차유택), 플루트(신새벽, 박은지), 피아노트리오(이안희, 유은지, 차유택)연주와 영상이 함께하며, 입예리 선생님의 곡해설과 문유숙 지휘자의 지휘 아래 앙상블 연주 및 다 함께 하는 합창의 무대가 풍성한 가을밤을 수놓았다.

광진구나루아트센터 대강당에 펼쳐진 이번 공연의 350여명 관람객들은 공연 시작시부터 앙울

이 나온 마지막 공연까지 힘차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었으며, 마지막 앙울 합창공연시 다함께 부른 합창무대는 너무나 감동이었고, 발달장애, 지적장애로 구성된 앙상블팀들이 이렇게 까지 연습하고 노력했을 교육생들과 학부모, 강사진을 생각하면 뭉클하다고 가을밤과 어울리는 힐링의 시간이었다는 감상평도 전해주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연주단원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예술로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무대와, 장애인 문화의 다양성 표현의 기회, 세상을 향해 똑같이 다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었길 기대한다.



소진우 목사 2012년-2013년 성회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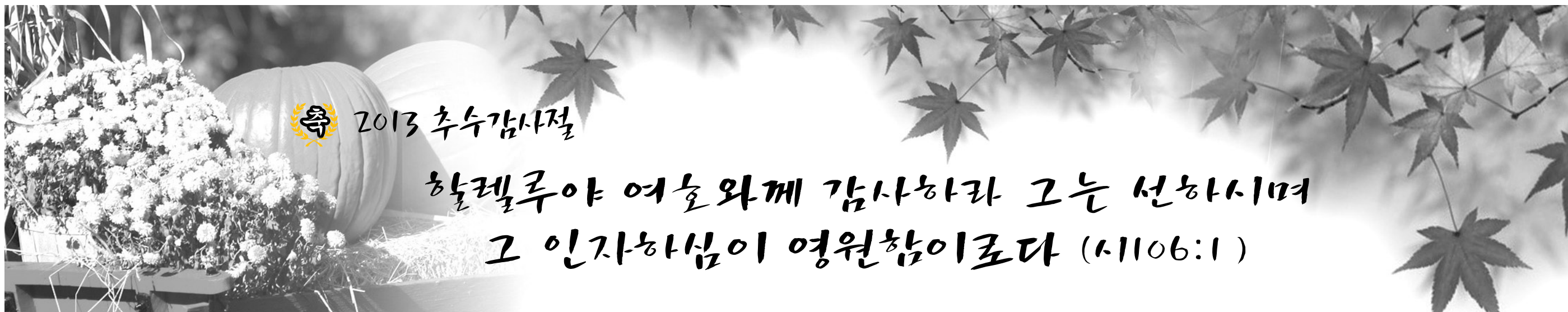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3391-9676(대)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p>2012년 1월</p> <p>2-4 천성교회(김영목사)</p> <p>6 오산리금식기도원(조희연원장)</p> <p>9-11 온사리교회(최태식목사)</p> <p>13 한일신기도원(이영금원장)</p> <p>13-18 신성교회(정대호)</p> <p>19 성신수양관(윤호균원장)</p> <p>22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p> <p>23-26 광운기도원(김한배원장)</p> <p>29 예제교회(류준모목사)</p> <p>30-1/2 한울교회(송우중목사)</p>	<p>2012년 4월</p> <p>2-4 하예성교회(김대중목사)</p> <p>5-6 성수기도원(박정연원장)</p> <p>9-10 정기노회</p> <p>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p> <p>15-18 동타래저들교회(이석원목사)</p> <p>23-25 주사랑교회(김주환목사)</p> <p>27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p>	<p>2012년 5월</p> <p>31-3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p> <p>7-9 우리교회(송인도목사)</p> <p>13-16 성진교회(송인도목사)</p> <p>21-24 광운교회(김동기목사)</p>	<p>2012년 6월</p> <p>3-6 주안교회(윤영구목사)</p> <p>7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p> <p>10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p> <p>12-14 베데스다교회(허영재목사)</p> <p>17-30 2주연속심화대성회(예복교회)</p>	<p>2012년 7월</p> <p>2-5 사명지역성회(송오성원장)</p> <p>8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p> <p>9-10 신항생여름제미니</p> <p>23-26 천보기도원(최정숙원장)</p>	<p>2012년 8월</p> <p>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p> <p>8-10 한일신기도원(이영금원장)</p> <p>11-16 광운기도원(김한배원장)</p> <p>20-23 갈멜산기도원(이옥란원장)</p> <p>27-30 성신수양관(윤호균원장)</p>	<p>2012년 9월</p> <p>2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p> <p>3-5 주우리교회(이희구목사)</p> <p>10-12 새만교회(김병수목사)</p> <p>17-20 금단총회</p> <p>24-26 일신제일교회(전창대목사)</p> <p>30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p>	<p>2012년 10월</p> <p>8-10 신일교회(정병수목사)</p> <p>12 한일신기도원(이영금원장)</p> <p>15-16 정기노회</p> <p>19 성수기도원(박정연원장)</p> <p>22-25 진리교회(송대규목사)</p> <p>26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p> <p>28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p> <p>29-31 김단지역기독교연합성회(회장 원신현목사)</p>	<p>2012년 11월</p> <p>3 주왕교회(김홍수목사)</p> <p>5-9 성교회(김성우목사)</p> <p>11-14 동서울교회(리계동목사)</p> <p>19-21 경원교회(이희경목사)</p> <p>2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p> <p>26-28 예수비전교회(이승연목사)</p>	<p>2012년 12월</p> <p>2-7 부흥성회(예복교회)</p> <p>10-15 필리핀선교회</p> <p>17-19 예원교회(한규식목사)</p> <p>23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p> <p>21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p>	<p>2013년 1월</p> <p>1-3 과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p> <p>7-9 정안성교회(강석진 목사)</p> <p>10 강남금식기도원(김성광 원장)</p> <p>14-16 김신교회(임동환 목사)</p> <p>20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p> <p>21-23 참좋은교회(김장수 목사)</p> <p>28-30 청남교회(조성민 목사)</p>	<p>2013년 2월</p> <p>1 한일신기도원(이영금 원장)</p> <p>5 참사랑교회(강신조 목사)</p> <p>4-7 갈멜산기도원(이옥란 원장)</p> <p>11-14 광운기도원(김한배 원장)</p> <p>17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p> <p>18-20 광정성교회(남동우 목사)</p> <p>21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p> <p>22 임마누엘기도원(이수영 원장)</p> <p>25-28 비전교회(조정현 목사)</p>	<p>2013년 3월</p> <p>17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p>	<p>2013년 4월</p> <p>1-3 광릉내교회(김상우 목사)</p> <p>8-11 성신수양관(윤호균 원장)</p> <p>14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p> <p>14 정기노회</p> <p>15-16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p> <p>22-25 주우리교회(이규홍 목사)</p>	<p>2013년 5월</p> <p>3 C네널 TV예배</p> <p>6-8 참사랑교회(강신조 목사)</p> <p>11 주왕교회(김홍수 목사)</p> <p>13-15 신일교회(정병수 목사)</p> <p>17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p> <p>19-6월 2주연속 특별 심화기도회</p>	<p>2013년 6월</p> <p>3-5 한교연합수련회(전희)</p> <p>10-13 온사리교회(최태식 목사)</p> <p>14 온사리금식기도원(극해원 원장)</p> <p>17-19 니들교회(최종진 목사)</p> <p>20-21 구대시리교회(송방)</p> <p>24-27 진주기도원(김신홍 원장)</p>	<p>2013년 7월</p> <p>1-3 은혜교회(유권재 목사)</p> <p>7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p> <p>8-10 천안교회(신승중 목사)</p> <p>15-19 선교신학고아들특강</p> <p>21-27 예복교회 특별기도성회(담임 소진우 목사)</p> <p>28 세계명교회(차영아 목사)</p> <p>29-31 한기전교인연합수련회</p>	<p>2013년 8월</p> <p>2 한일신기도원(이영금 원장)</p> <p>3 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 원장)</p> <p>4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p> <p>5-8 금산리마델수양관(이수영 원장)</p> <p>12-15 광운기도원(김한배 원장)</p> <p>19-22 갈멜산기도원(이옥란 원장)</p> <p>26-29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p>	<p>2013년 10월</p> <p>4 노회총회(김영희예배)</p> <p>7 대신미디어예배</p> <p>7-9 뽕밭교회</p> <p>13-15 정기노회</p> <p>17 부흥사역수원목장</p> <p>20 천보산기도원</p> <p>21-23 인천성산교회</p> <p>27 선교사파송예배</p> <p>28-30 판교성도교회</p>	<p>2013년 11월</p> <p>4-9 선교지방문</p> <p>11-13 행복한교회(박성일 목사)</p> <p>18-20 청원제일교회(최준연 목사)</p> <p>24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p> <p>25 서광교회(김장수 목사)</p>	<p>2013년 12월</p> <p>2-8 2주연속부흥회(예복교회)</p> <p>9-15 2주연속부흥회(예복교회)</p> <p>16-16 임마누엘교회(이성현 목사)</p> <p>30-31 송구영신예배준비기도</p>
--	---	---	--	---	--	---	--	--	--	---	--	---	--	--	--	--	--	---	---	--



축 2013 추수감사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106:1)

감사의 계절에(시편 136:1~4)

가끔 보면 은혜를 오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에서 나고, 문제가 풀리고, 원하던 것을 얻는 것만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말씀을 들은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만 진짜 은혜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은혜가 간직될까요?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와 지금도 받고 있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는 환경이 모질고 힘들어도 우리는 법사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의 계절에 드리고 싶은 3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1. 실망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어떤 분은 너무 실망을 잘합니다. 실�패하면 금방 실망합니다. 그런데 실패를 잘 극복하면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불평은 어떤 환경도 지옥으로 만듭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어떤 환경도 천국으로 변화시킵니다. 어떤 분이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자



정기환 목사
(지저스타임즈, JTN방송 이사장, (사)기독교학원 이사장)

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자신이 낮아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3. 간구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기도를 보면 감사보다는 달라는 간구가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 주세요!"라고만 합니다. 초신자 때에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잘 주십니다. 그러나 신앙 연주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은 감사가 없는 삶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삶은 법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법사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그런 삶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실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신본적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장막절)는 명절 중 가장 큰 절기요 최종 종결 축제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담임
본지 언론부흥협부총재

진정한 신본적 추수감사절은 레위기 23장의 장막절(또는 수장절)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7대 명절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대대로 지키라고 했고 특히 장막절이 명절들 중 제일 절기 중에서도 최종 종결 축제입니다. 즉 가장 큰 명절이요 이는 그 실상이 곧 그리스도요(골 2:16, 17). 이 그리스도의 장막이 재림하시어 우리와 친히 함께 거주하게 될 날(계 21:3)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재림하실 영광스런 장막인 그리스도의 몸은 영광된 몸이요(빌 3:21)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이요(고전 15:49), 영적인 몸이요(고전 15:46), 또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은 몸(고전 15:48)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중에 나타나시는 신령한 몸이요, 이 우주에 속하지 않는, 이 자연에 속하지 않는 즉 하늘나라에 속한 몸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우주 안에서는 이 같은 시공을 초월하는 또 영원불변하는 몸을 절대 찾을래야 찾을 수 없지요.

장막절 실현되는 날은 주 재림 후요 또

완전히 새로운 질서, 새로운 것으로 바뀌지는 새로운 세계(계 21:4, 5)가 됩니다. 이를 히 2:5 등에서 오는 세상(또는 내세)이라고 말씀하지요. 이 오는 세상은 지금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지요. 죄악·저주·죽음이 전혀 없고 눈물이나 슬픔도 없는 하늘나라, 초우주적 질서로 세워지는 곧 새로운 세계가 바로 이 장막절이 이뤄진 때가 됩니다. 즉 내세요, 다시 오는 세상인 것입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계 21:1-2)은 우리의 몸이 앞으로 주 재림 시 부활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막과 똑같이 영화롭게 될 것임을 가리켜줍니다. 즉 어린양의 신부들이 새 예루살렘이요 영광을 친히 입은 부활한 몸이 바로 새 하늘 새 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장막절이 실제로 이뤄지는 그 날에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새로운 세계에서 주님과 동거동락(同居同樂)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에 한마디

골라서 말하고 골라서 들어라



이효은 목사
화정중현교회 담임목사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협 총재

감사라는 말 만큼 맛있는 말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라는 Think와 감사라는 Thank는 스펠링이 하나 차이이다. 생각해보면 그저 감사할 일이 널려있다는 말이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골라서 말하고 골라서 듣고 우리의 가슴과 삶에 감사로 물들려 보자.

말은 골라서 듣고 골라서 해야 한다. 사람들은 남의 안 좋은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고 또 그런 말을 하기 좋아 하는 경향이 있다. 남이 잘 한다든지, 남이 잘된 이야기보다, 남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나, 남이 잘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일에 흥미를 가진다.

아주 좋지 못한 버릇이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듣는 이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을 주고 즐겁게 해주는 말은 용기를 북돋아주고 슬픔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수고했다.", "고맙다.",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좋아해야하는데 왜 우리의 입은 골랄 비판적이고 흉을 보고 허물

을 들추어내기를 좋아할까?

귀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하니까 싫든 좋든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귀도 들어서 좋지 않은 말은 듣지 말아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들었다면 안들은 것처럼 여기고 그 말을 입 밖으로 내 보내지 말아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온갖 갈등과 불화의 원인은 대부분 쓸데없거나 이롭지 않은 것을 듣고, 보고, 말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 내기도 더디 하라.(약1:19)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골래 씌우리라.(약 3:2)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약 3:6)

깊이 새겨져 말씀이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말만 듣기를 좋아 하는데 그래서 충신과 간신이 생긴다. 충신은 나라와 임금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목숨까지 바친다. 그에 비해 간신은 임금님의 하는 일이 옳든, 그르든, 상관하지 않고 임금님이 당장 듣기에 좋은 말만 하여 신임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역사를 더듬어 보면 간신의 말만 듣고 충신을 멀리한 임금은 망하고 만다.

감사의 한마디 말이 나와 나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든다. 「무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엡4:29)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 50:23)

사람에게 최고의 말은 사랑과 감사가 아닌 기. 감사에는 은퇴나 퇴직이 없다.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데...

금년 추수감사절은



노설원 목사
최순길 목사
(수목원교회)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간 102명의 the Puritan 들이 낮 설고 물 설은 개척지에서 갖은 풍토병과 각종 생활의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해 농사를 수확한 후 얻은 새 땅에서의 첫 결실을 감사하여 드린 감사 기념 예배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야말로 땅과 눈물로 감사가 뒤범벅된 벅찬 감동의 예배를 드렸던 그들이 바로 현대 미국을 탄생시킨 선조들이었다.

이들의 첫 추수감사절의 벅찬 환희는 단 순히 한 나라의 건국 일화나 한 해의 추수의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세계 누구에게나 신앙과 자유의 존엄성을, 그리고 개척자정신의 고귀함을 보여 주는 산 실례로서 인류의 가슴속에 진한 감동을 준다. 특히 이들의 후예인 미국 교회는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게 되었고, 천 년의 불교와 오백 년의 유교가 자리잡고 있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지

금의 대한민국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의 자연스런 영향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교회에서는 자연스레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다. 당시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풍습은, 그리고 개척자정신의 고귀함을 보여 주는 산 실례로서 인류의 가슴속에 진한 감동을 준다. 특히 이들의 후예인 미국 교회는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게 되었고, 천 년의 불교와 오백 년의 유교가 자리잡고 있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지

5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에 각 가정의 부모는 첫 추수 감사절이 지켜지기까지 고생했던 선조들의 수고를 설명해 주며 자녀들과 함께 옥수수를 함께 먹기도 한다.

우리에게도 추수감사절기가 이미 오래 되어 교회마다 지켜지고 있다. 꼭 미국 식으로만은 아니라도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로 6.25를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어느 교회에서는 당시를 생각하며 소금을 넣은 보리 주먹밥을 한 덩어씩 먹으며 당시를 회상하는데 그 때에는 꼭 자녀들이나 함께 한 사람들에게 어려웠던 시절에 대해 상기될 수 있도록 설명함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오늘날의 이 풍요로움을 참으로 어려운 이웃과 빈곤한 나라에 도움을 주는 마음을 갖도록 함이 추수감사절을 맞는 자세일 것이다. 추수감사절에 헌금되어 온 것으로 교회 내에서 사용할 보다 외부에 구제, 혹은 선교비로 보내어 주는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있게 사용 되는 것인가? .

조강수목사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333 중보기도 운동

할렐루야!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CBS TV 비전특강을 인도하는 조강수 목사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333중보기도 운동이란?

- 3. 3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 3. 3백명의 기도는 용사처럼
- 3. 3분간 합심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운동

■ 동참하는 방법

성도님들의 삶속에 기도가 필요할때 즉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예)○○교회 ○○집사입니다. 우리 자녀가 수술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이름과 본인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 보내주시는 문자내용은 전 중보기도 회원에게 문자로 전달 됩니다.
- 문자내용을 받는 즉시 전 중보회원은 3분간 장소구애없이 합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기도 할 것입니다.
- 중보기도 신청번호(010-9300-0695)이곳으로 사연을 보내시면 됩니다.
- 중보기도 회비(월5천원) 계좌번호: 농협301011-94-81821 예금주: 영광교회
- 입금하시고 문자주시면 바로 회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조강수 목사

- 영광교회 당회장
- CBS TV 비전특강 강사
- CTS TV 빛으로소금으로 강사
- 웨신총회 신학교 이사장
- 중보기도 사역원장



한기총 총무협, 제13차 정기총회 열어

신임회장 정춘모 목사 “더 나은 총무협이 되겠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협의회(이하 총무협)는 11일(화) 오전 11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신) 총무 정춘모 목사를 선출하였다. 회의는 회

원점명 결과 51명 참석으로 성수가 되었고, 전회기록 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후 임원선거가 있었다.

회장 선거에는 총무협 규칙에 따라 부회장을 역임한 정춘모 목사와 권오삼 목사(예장보수 총무)

가 후보로 나왔고, 투표결과 정춘모 목사가 27표, 권오삼 목사 20표로 정춘모 목사가 선출되었다. 부회장

선거에는 27표와 32표를 얻은 김병근 목사(예장합동총신측 총무)와 김홍성 목사(하나님의성회 총

무)가 선출되었다. 또한 서기에는 김추대 부회장과 2인은 권오삼 목사, 황연식 목사(예장호헌 총무)가 선임되었고, 단체 부회장은 정해송 목사(해의문화교류협회 총무)가 선임되었다. 또한 서기에는 김

명식 목사(기하성순복음 총무), 부서기에 이동광 목사(예장브니엘 총무), 회록서기에 손귀영 목사(예장합동총회 총무), 부회록서기에 서승원 목사(예장합동보수C 총무), 회계에 강재창 목사(예장합동동신 총무), 부회계에 이화평 목사(예장합동국제 총무), 감사에 김정수 목사(예장보수합동 총무), 성경모 목사(예장합동진리 총무)가 각각 선임되었다.

회장 정춘모 목사는 “앞으로 1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며 “총무협이 한기총을 위해서 역할들을 잘 해나가며, 더 나은 총무협이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회의에 앞서 드러진 예배에는 서승원 목사의 사회로 김홍성 목사가 기도하였고, 제12대 총무협회장이었던 황규철 목사가 예배소서 2장 19-22절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황규철 목사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가장 아름답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갈 때 가능할 수 있다”며 “떡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사도바울의 교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예배는 서승원 목사의 광고와 권오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황규철 목사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가장 아름답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갈 때 가능할 수 있다”며 “떡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사도바울의 교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예배는 서승원 목사의 광고와 권오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시편 145편 1절>



총회장 김정열 목사
벤엘교회



부총회장 김종완 목사
평안교회



서기 조재호 목사
우리교회



부서기 정석진 목사
계로교회



회의록서기 임순중 목사
큰성산교회



회의록부서기 김국택 목사
하늘소리교회



회계 홍시나 목사
주천양교회



부회계 김성덕 목사
생수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신학

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신·편입생 모집

● 모집과정 및 지원자격

과정	학과/학제	지원자격
신학부	신학과 (주/야간) 8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례를 받은 자 학력이나 성별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본교가 인정하는 타신학 졸업, 중퇴한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이 가능 위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 반드시 면접시험에 합격해야 함 일반대학생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 됨
신대원	신학과 (주/야간) 4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학부에서 각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 졸업 또는 이수한 자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에서 중퇴 또는 유학 등으로 학업을 쉬고 있는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 됨
통신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학부 및 신대원 수료자 강도사 수위 후 목사안수

● 특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 함
- 학력, 경력, 성별에 상관없음
- 계절학기를 활용함
- 여목제도가 잘 활용되어 있음
-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 함
- 본 과정은 서울 본교와 각 지방 캠퍼스가 모두 동일 함

서울개혁총회신학

- 총장: 윤관 박사
- 학장: 김종환 목사
- 주소: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483-1 (4층) 사랑의교회(내)
- 전화: 010-3758-8905

천안개혁총회신학

- 학장: 김정열 박사
-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87-1 행복을주는교회(내)
- 전화: 041-534-8765 010-4731-0391

대전개혁총회신학

- 학장: 임순중 박사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3-43 번지 2층 큰산성교회(내)
- 전화: 042-320-9193 010-6413-3456

부산개혁총회신학

- 학장: 이은우 목사
-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인력동 947-14
- 전화: 010-5511-4848

성남개혁총회신학

- 학장: 김정열 박사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29-4 (5층)
- 전화: 041-534-8765, 010-4731-0391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연락처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613-3

총회장 : 김정열 목사(010-4731-0391) 서기 : 조재호 목사(010-6266-1331)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Do you Have Passion? Passion is DREAM!

마음껏 외쳐라!

제1회

청소년 성가경연대회

일시

예선 : 2013년 11월 2일 (토) 오후 2시

본선 : 2013년 11월 23일 (토) 오후 2시

장소 : 영광교회(인천 서구 가좌4동 4-24)

■ 주최:웨신 찬양신학교 ■ 후원: 인천영광교회

본선 시상

- 대상 - 상금 50만원 및 트로피
- 금상 - 상금 30만원 및 트로피
- 은상 - 상금 20만원 및 트로피
- 동상 - 상금 10만원 및 트로피

- 참가자격 :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및 (이에 준하는 연령의 학생 청년)
- 참가부분 : 솔로 중창 합창 그룹사운드
- 참가곡 : 기존 찬송가 CCM 복음성가 또는 자 작곡
- 예선 합격자 발표 : 10팀 (예선 당일 발표)
- 제출서류 : 1) 참가신청서 (영광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
2) 참가곡이 녹음된 CD 1장 or 음원파일
3) MR, 참가곡 악보 5부(10분이내, 당일제출)
- 원서마감 : 우편접수 및 방문 전달
1) 2013년 10월 26일 소인까지 유효함
영광교회 (인천 서구 가좌4동 4-24)
2) 10월 26일까지 영광교회 홈페이지 접수 (www.youngkwang.net)

- ◀ 협찬 : 벤엘농장, (주) 대흥캡, 부흥건설, 대지산업(주) 부건
- ◀ 문의 : 영광교회 사무실 032)575-1654